



마 동 석

“연기 오래하려면 팔색조 되어야죠”

영화 ‘굿바이 싱글’ 로맨틱 코미디 도전 ‘고릴라’에서 ‘귀요미’로 이미지 변신

한국에서 배우 마동석(사진)과 같이 몸이 캐릭터인 배우가 또 있을까. 그는 넓은 어깨와 두꺼운 팔뚝만으로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팔팔’을 보여준다. ‘이웃사람’(2012)에서 살인마를 호쾌하게 두들겨패는 동네 강패 역이나 ‘함정’(2015)에서 호의를 베풀다가 섬뜩한 살인마로 변하는 식당 주인 역을 연기할 때 그가 내뿜는 강함은 그의 우락부락한 신체가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 그의 몸은 간혹 정반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긴장한 외모와는 동떨어진 소심한 성격처럼 외면과 내면의 불일치에 기반한 웃음을 노리는 장치로도 쓰인다. ‘결혼전야’(2013)에서 나이 어린 우크라이나 여자와 국제결혼하는 꽃집 노총각 건초가 그런 역이었다면, 이번 ‘굿바이 싱글’의 평구 역은 그 확장판이다. 인터뷰에서 자신의 말은 배역과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굿바이 싱글’에서 왕년의 톱스타 주연(김혜수)의 스타일리스트이면서 주연이 치는 사고를 뒷수습하는 20년지기 친구 평구를 연기했다.

우선 그는 평구의 외양을 갖추는 것이 “특수분장이나 다름없는 난이도”였다고 호소했다. 직업이 스타일리스트이자 여러 별의 웃을 입고 안경까지 끼야 했다. 마동석은 “액션이 많은 영화에서는 같은 웃을 여러 벌 준비해서 입은 적이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처럼 24벌이나 입은 것은 처음”이라며 “평상시 발이 시리지 않은 계절에는 슬리퍼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편하게 운동복 차림으로 다니는 저로서는 상당히 여색했다”고 말했다. 마동석의 평구는 엄마처럼 잔소리하며 주연을 돌봐주는 반전 연기를 선보인다. 그는 ‘이웃사람’의 동네 강패와는 다른 평구 역을 어떻게 연기 했느냐는 질문에 영화의 톤과 캐릭터를 따져보고 연기의 수위를 조절했다고 답했다. 그는 협상국은 인상과 달리 ‘마요미’(마동석+귀요미) 또는 ‘마블리’(마동석+러블리)란 별명으로 불린다. 마동석은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감사하다”며 “예전에는 별명이 고릴라였는데 지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됐

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그런 별명을 만들려고 전라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다. 어쩌다 생겨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도전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다. 일부러 ‘센 이미지’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했다. 마동석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패도 하고 형사도 하고 말랑말랑한 배역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자로서의 그의 목표는 “오래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가 간단치가 않다. 그가 보기에는 “발전이 없으면 연기를 오래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발전은 연기자로서의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팔색조처럼 여러 배역을 잘 소화해내는 유형이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성룡처럼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화된 연기를 보여주는 유형이 있다. 마동석은 “두 가지 다 필요할 것 같다”며 연기 욕심을 전혀 감추려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번엔 전북 고창서 ‘삼시세끼’

tvN 내달 1일 방영 ... 차승원·유해진·손호준·남주혁 호흡

tvN ‘삼시세끼’의 새로운 시즌에 배우 유해진이 출연한다. 지난 두 번의 ‘어촌편’에서 차승원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유해진은 새 시즌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촬영에 합류했다. 13일 제작진에 따르면 유해진은 영화 관련 스케줄 때문에 ‘삼시세끼’ 출연이 불투명했으나 직접 영화 제작사에 양해를 구해 스케줄을 조정했고 늦게나마 촬영에 입할 수 있었다.

‘정선편’ ‘어촌편’에 이은 새로운 시즌은 전라북도 고창이 배경으로, 기존 멤버인 차승원-유해진-손호준에 막내 남주혁이 합류해 새로운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제작진은 “유해진의 부재를 아쉬워하던 차승원은 뒤늦게 깜짝 등장한 유해진의 모습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새 촬영지인 고창에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내달 1일 밤 9시 45분 첫 방송. /연합뉴스

굿바이 포미닛

데뷔 7년만에 해체 결정

5인조 걸그룹 포미닛(남지현, 허가은, 전지윤, 김현아, 권소현)이 데뷔 7년 만에 해체한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포미닛은 이달 중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 측과 오랜 논의 끝에 팀 해체를 결정했다. 큐브는 다섯 멤버 중 현아와 재계약을 했으며 일부는 재계약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멤버들은 향후 본격적으로 새 동지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핫 이슈’(Hot Issue)로 데뷔한 포미닛은 큐브 설립과 함께 선보인 팀이다.



이들은 ‘뮤직’, ‘거울아 거울아’, ‘하트 투 하트’(Heart To Heart), ‘이름이 뭐예요?’, ‘오늘 뭐해’, ‘볼륨 업’(Volume Up), ‘미쳐’ 등 다량의 히트곡을 내며 걸크리시(여성이 여성에게 반할 만큼 멋지다는 뜻)를 대표하는 팀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지난 2월 미니 7집 타이틀곡 ‘싫어’(Hate)로 활동하는 등 지금껏 여느 그룹과 달리 별다른 잡음 없이 팀워크를 유지한 팀이어서 팬들의 총명과 아쉬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그룹과 솔로 활동을 병행한 현아는 현재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Table with TV programs for 14th day, including KBS1, KBS2, MBC, and KBC/SBS channels.

Table with EBS 1 TV programs for 14th day.

Table with daily fortune (운세) for the 14th day, includ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